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김 창 섭

국어의 한자어 형성에 고유어 문법이 가하는 제약을 찾으려고 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유어 문법의 漢字 2字語 분석은 의미적 존재로서의 '형태소+형태소'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성분간의 문법 관계는 분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어 문법은, 3字語의 경우는 語基(2字)와 語根/接辭(1字)로 분석하고 그 성분 간의 어순이 '오른쪽 핵' 원리에 맞을 경우에만 국어 단어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어순의 측면에서 고유어 문법은 2자어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3자어에는 '오른쪽 핵'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제약을 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字語라 할지라도 非核名詞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3字語에 대한 고유어 문법의 이러한 제약 결과 고유어 문법이 3字語類의 형성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생긴다.

1. 서론

한자와 그 결합은 본래 한문 문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이들이 국어에서 국어 문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용될 때는 당연히 어떤 제약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제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한자 1 字가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 못한다는 것

1) 국어 화자가 한자 형태소를 인식할 때 그 音의 성격에 더해 表記字의 字形이라든가 非音의 성격이 함께 시각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표기 수단인 '字'로 언어 실체를 부르는 것이 차원의 혼동이 아니다.

일 터이다. 한문에서는 漢字 낱字의 절대 다수가 단어 자격을 가지며 극히 소수만이 접사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漢字 2 字 구성이 비로소 단어가 될 자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國’은 국어 문법에서는 의존 형태소로서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다른 자와 결합하여 2 字 구성을 이루어야만 단어가 된다(예: 小國, 國民). 그러므로 ‘2 字語’는 단순히 두 字로 표기된 단어라거나 두 형태소로 된 단어라는 뜻을 넘어 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1 字로서 단어 자격을 가지는 ‘山’, ‘詩’, ‘請’과 같은 존재는 수만 개 한자 중에서 100개 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송기중 1992:46), 이들이 국어에서 단어가 된 것은 형태론적으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字 형식 중에는 형태론적으로는 단어로서 적격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의 사용에서는 단어의 내부에만 나타나거나 다른 요소와 분리가 어려운 자리에 나타남으로써 자립형식으로서의 단어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利己+的’, ‘利己+心’의 ‘利己’는 단어 내부에만 나타나며, ‘高貴’는 자립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 ‘高貴하다’처럼 ‘하다’와 밀접히 결합된 구성으로만 쓰인다. 졸저(1996)에서는 단어형성론적으로 단어로서 적격하나 더 큰 단어의 성분으로만 나타나는 형식을 단어로 인정하여 ‘潛在語’라고 하였는데, 바로 ‘利己’, ‘高貴’와 같은 형식을 잠재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

동일한 실체가 한문에서 가지는 자격과 국어에서 가지는 자격이 다른 것은 복수 漢字의 구성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小國’이나 ‘對韓’, ‘對韓國’은 한문에서는 句이고 국어에서는 單語이다. 또, ‘訪韓’과 ‘訪韓國’

2) 졸저(1996:19)에서는 ‘갈림길’의 ‘갈림’과 같은 구성요소를 잠재어라고 하였다. ‘갈리+口’은 통사부에서는 단어로 사용되지 못하나, 단어형성론적으로는 ‘동사어간+접미사’(또는 ‘동사어간+어말어미’)로 분석되므로 단어로서 적격하다. 졸고(2001)에서는 접미사적 성격의 동사와 그 보어를 관할하는 동사구를 V^o로 설정하고, V^o의 관할을 받으며 제한적으로 통사적 행위를 보이는 어근적 요소를 위해 어근구(RP: root phrase)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高貴하-’는 ‘[[고귀]_{RP} [하]_{VI+SUFFIX}]_{IV}’로 분석된다.

은 한문 문법에서는 다 가능한 句이나 국어 문법에서는 ‘訪韓’만이 가능한 단어이다. 여기에서 한문 통사론의 일부가 국어 한자어를 위해서는 형태론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한문의 구는 국어의 요소로 사용될 때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또 ‘一筆揮之(하다)’는 한문 문법의 구인데, 고유어 문법으로는 네 개의 형태소가 분석될 뿐이고 그 이상의 분석은 불가능하다. 덧붙여, 서술명사로서의 ‘身體+檢査(하다)’는 고유어 문법에 의해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어순 때문에 한문 문법으로는 비문법적이다.

2字語의 앞이나 뒤에 다시 1字가 결합하여 된 단어는 ‘3字語’라고 부를 수 있다. 고유어 문법에서 ‘小說+集’은 ‘단어+어근’으로 된 3자어이다.³⁾ ‘詩+集’은 2자로 되어 있지만 ‘단어+어근’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3자어와 같은 구성이므로 ‘3자어類’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書+集’은 ‘형태소+형태소’의 2자어일 뿐이다.⁴⁾ 그러나 한문 문법에서는 ‘小說+集’, ‘詩+集’, ‘書+集’이 똑같이 ‘단어+단어’이다. 그래서 ‘詩集’과 같은 경우는 고유어 문법에서 3자어류의 자격에 더해 ‘書集’과 같은 자격, 즉 2자어의 자격을 겸해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한문 문법이 만든 2字, 3字 구성에 대해 고유어 문법이 국어 단어로서의 적격성을 판정하여 국어 단어로 승인 혹은 거부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라는 성격을 가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1) a. 愛國(하다), 讀書(하다), 訪韓(하다), 植木(하다) …

3) ‘語根(root)’을 본고에서는 단어를 구성하는 非接辭 形態素들 가운데 언제나 의존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4) ‘2字語’와 ‘1字’가 결합된 단어만을 3字語라고 부른다. ‘上+中+下’와 같은 구성은 3字語에 넣지 않는다. ‘潛水+艦’은 3字語이고, 그 준말 ‘潛艦’은 2字語이다. ‘對潛’도 2字語이다. ‘潛水+艦’, ‘對潛+戰’, ‘對+潛水艦’, ‘對潛水艦+戰’은 모두 3字語類이다. 고유어나 외래어를 포함하는 ‘ 똑딱船’, ‘駐캐나다’와 같은 예도 3字語類에 넣기로 한다.

- b. *愛國家(하다), *讀新聞(하다), *訪韓國(하다), *植樹木(하다) ...
 (2) a. 對人 (관계), 對民 (봉사), 對韓 (정책), 對潛 (작전) ...
 b. 對人間 (관계), 對國民 (담화), 對韓國 (정책), 對潛艦 (작전) ...

(1b)는 (1a)의 목적어 부분을 2字語로 바꾸었을 뿐인데 非語가 되었다. 이들도 물론 한문의 句로서는 문법적이다. 그러나 (2)에서 보듯이 이와 동례의 과정이 늘 非語를 낳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對+人⇒對+人間’과 ‘愛+國⇒*愛+國家’가 보여 주는 대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정리를 위해 본고의 한자어 분석 방법을 표로 보이면 다음 (3)과 같다.

(3) A=형용사, N=명사, P=전치사, V=동사, R=어근, M=형태소, AN=관형명사, VN=서술명사⁵⁾

	한문 문법	고유어 문법
a. 小+國	A+N=NP	M+M=N
b. 對+韓	P+N=PP	M+M=N(AN)
c. 對+韓國	P+N=PP	R+N=N(AN)
d. 訪+韓(하다)	V+N=VP	M+M=N(VN)
e. 訪+韓國(하다)	V+N=VP	非文法的
f. 詩+集	N+N=N	M+M=N, N+R=N
g. 一筆揮之(하다)	NP+VP=VP	M+M+M+M=N(VN)
h. 身體+檢査(하다)	非文法的	N+N(VN)=N(VN)

국어의 한자어 형태론에는 한자어를 고유어 문법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와 한자어만을 위한 별도 체계를 세워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규철(1980, 1997)에서는 전자를 ‘동일체계론’, 후자를 ‘별도체계론’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익섭(1968)은 별도체계론에 의한 연

5) ‘관형명사’는 형태론적 구조 상 관형적 기능으로만 쓰이는 명사이고 ‘서술명사’는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이다.

구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예컨대 ‘愛+國’을 ‘동사+목적어’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한문 문법의 체계에 근거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본고는 그 고유어 문법 체계와 한문 문법 체계의 ‘두 다른 體系에 의한 두 階層’의 연구라는 성격을 가진다.

2. 2字語의 분석

한문의 단어(대개 漢字 一字)들은 품사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문장 속에서 다양한 품사로 쓰인다. 다음 (4)의 ‘宿’의 예들은 심재기(1987/2000:176)에서 漢字가 다양한 통사적 기능을 가지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함을 강조하기 위해 든 것이고, (5)의 ‘成’의 예들은 송기중(1992:55)에서 하나의 漢字에 대한 문법적 인식이 단어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기 위해 든 것이다.

- (4) a. 동사: 宿泊, 宿食 / 合宿, 下宿, 野宿
 b. 형용사: 宿德, 宿望, 宿命
 c. 부사: 宿直
 d. 명사: 投宿
- (5) a. 형이 이루어짐: 形成
 b. X를 이름: 成家, 成佛, 成事, 成禮
 c. 이룬(이루어진) X: 成年, 成果, 成人, 成績
 d. 이루고(이루어서) X함/X하고(해서) 이름: 成立, 成就, 成敗, 造成
 e. X하게 이름: 大成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가지 문법 기능으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는 고유어 문법에는 (4), (5)의 상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송기중(1992:55)에서는 국어 화자들이 한자어에서 ‘意味素’와 유사한 단위로서의 ‘동일한 音節形式’을 인식하지만, 그 형식의 문법적 인식은 ‘단어에

따라 다르게' 한다고 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고유어 문법에 있어서는 '단어에 따라 다르게'가 '단어에 따라 특정 구성법으로'가 아니라 '구성법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의 상황이라고 본다. 즉 고유어 문법에서 2字語의 구성 요소인 1字들이 가지는 자격은 순전히 의미적인 것일 뿐, 품사적 자격을 비롯해서 어떤 문법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로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문법 기능이 명세되지 않은, 意味와 音形式의 결합체로서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⁶⁾

필자는 여기에서 국어 화자의 지식을 고유어 문법의 것과 한문 문법의 것으로 구별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동일한 화자가 (4), (5)의 예들의 형성에 쓰인 한문 문법과 어휘(낱자들)를 완전하게 안다 하여도 그가 그 지식을 국어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국어 문장 속에서는 2字語의 결합 당시의 문법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6) a. 建國하다: 누가 {*0, 이 나라를} 건국하였는가?
 b. 呼名하다: 내가 {0, 너를/내 이름을} 호명하면 ...
 c. 讀書하다: 나는 {0, *이 책을} 독서하고 있다.
- (7) a. 乘車하다: ㉠차{*를/*에} 승차해라. ㉡이 차{*를/*에} 승차해라. ㉢*나는 승차를 좋아한다.
 b. 乘船하다: ㉠배{*를/*에} 승선해라. ㉡이 배{*를/*에} 승선해라. ㉢*나는 승선을 좋아한다.
 c. 乘機하다: ㉠기회{*를/*에} 승기해라. ㉡이 기회{*를/*에} 승기해라.

6) 본고에서는 고유어 문법으로 2자어를 분석할 때 그 구성요소가 어근인가 접사인가의 판정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자어의 구성요소는 다만 형태소로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가 3자어의 1자 요소로 쓰였을 때는 어근과 접사의 신분이 구별된다고 본다.

2字語의 1字들이 국어 문법에서 어떤 기능적 단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노명희(1990:27-30, 1998:17)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단 거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를 '어근'으로 인정하였지만 본고에서는 '형태소'로만 인정한다.

㉔*나는 승기를 좋아한다.

- d. 乘馬하다: ㉑말(*을/*에) 승마해라. ㉒이 말(*을/*에) 승마해라. ㉓나는 승마를 좋아한다.

(6)의 2자어들은 한문 문법에 의해 ‘서술어+목적어’의 동일한 문법 관계로 결합되었다. 이들에서 목적어 성분이 이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단어 밖에 목적어가 있으면 비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建國하다’에서는 오히려 목적어 성분이 없으면 비문이 되고, ‘呼名하다’에서는 예측대로 목적어 성분이 없어도 되나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讀書하다’에서만 해당 성분이 어떤 형식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논항구조 결정에서의 불규칙성은 이 한자어들이 의미상의 목적어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목적어적 요소를 새로 도입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7)은 한문 문법에서의 ‘서술어+보어’ 구성을 ‘乘’이라는 하나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한 것인데, ‘乘X하다’의 논항 구조가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그 보어가 실현되는 경우라도 단어 내부의 보어(‘車/차’, ‘船/배’)보다 더 구체적이어야(‘이 차’, ‘이 배’)함을 알 수 있다. 또, ‘乘車’, ‘乘船’, ‘乘機’는 서술명사일 뿐인데 ‘乘馬’는 예컨대 ‘野球’와 같은 부류의 運動名이 되어 意味部類가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구성요소 간의 문법적 관계를 아는 화자일지라도 그 아는 것을 문장 형성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6c, 7c, d)의 일견 규칙적인 경우도 다른 불규칙한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단어 전체로서의 의미가 그러한 논항 구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상당 부분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被-’마저도 2字語에서는 그 문법적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8) a. 被擊하다 [동](타) 被擊되다 [동](자) 《금성판국어대사전》

b. 被襲하다 [동] 습격을 하다. ㉑괴한들이 … 일행을 피습해 …

被襲되다 [동] 습격을 받다. ¶ 민영익이 ... 자객에게 피습되어 ...
《연세한국어사전》

- c. 被襲하다 [동] ... ¶ 왜국 공사관을 피습하여 전투가 벌어지자 ...
被襲되다 [동] ... ¶ 그는 어젯밤 테러단에게 피습되었다. 《표준국어
대사전》

국어사전에는 2字語 ‘被X’가 ‘하다’나 ‘되다’와 결합하여 자동사가 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오늘날 실제로는 ‘되다’가 훨씬 우세하다.⁷⁾ (8)의 ‘被擊하다’, ‘被襲하다’는 오늘날의 젊은 화자들에게는 새로이 타동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그 타동사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유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9) 체포되다(피동) : 체포하다(능동) = 피습되다(피동) : X,
X = 피습하다(능동)

그런데 이 유추는 ‘被襲되다’의 피동 의미를 ‘되다’가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被’의 ‘피동’이라는 문법 의미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사전들에서 ‘被襲’을 ‘襲擊’의 뜻으로 풀이하고, ‘被擊하다’나 ‘被襲하다’를 타동사로 기술한 것은 그러한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2字 ‘被X’는 이미 피동의 뜻을 잃고 ‘被襲하다’[能動詞(타동사)]—‘被襲되다’[被動詞(자동사)]의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被’의 기능 변화도 고유어 문법이 2字語의 문법 기능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⁸⁾

여기에 더해 ‘家出(하다)’(보어+서술어), ‘例舉(하다)’·‘詩作(하다)’(목

7) ‘被X’가 속하는 의미 부류의 단어들은 현대 국어에서 ‘하다’를 기피하고 ‘되다’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예컨대 ‘痲痺하다/되다’에서는 그 변화가 완성되었고, ‘해당하다/되다’, ‘도착하다/되다’에서는 진행 중이다.

8) 반면에 ‘[被+敎育]+者’, ‘[被+壓迫]+民族’ 등 3字語의 ‘被-’는 화자들에게 그 기능이 뚜렷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 참고.

적어+서술어),⁹⁾ ‘[石+拔(목적어+서술어)]+米’와 같은 단어들의 존재도 지적할 수 있다. 화자들이 이들을 漢文의 어순에 대한 반성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화자들이 2字語는 그 내부의 문법적 관계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되는 2字語의 성분들은 다만 의미적 존재일 뿐 문법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유어 문법과 한문 문법을 다 운용하는 동일한 화자는 한문 문법으로 두 성분 사이의 문법 관계를 분석하여도 그 결과를 국어 문장 형성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3字語의 분석

서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字語類란 국어 한자어의 기본 형식인 2字語나 그에 해당하는 1字語, 3字語가 語基가 되고, 그를 중심으로 그 앞이나 뒤에 1字 요소(어근 또는 접사)가 더해져 형성된 한자어이다(주 4 참고). 국어 한자어의 기본 형식으로서의 2字語라든가 그에 해당하는 1字語 및 3字語, 그리고 단어 혹은 잠재어(주 2 참고)라는 자격 등은 모두 고유어 문법에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3字語라는 개념은 고유어 문법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字語의 앞이나 뒤에 덧붙는 1字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한문의 名詞字는 비교적 많은 수가 3字語의 1字 어근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丁, 井, 伴, 倫, 俳, 傍, 僚, 冬, 刃, 厓, 原, 友, 叔, 味, 塞 …’ 등이 3字語의 1

9) ‘家出(하다)’과 ‘出家(하다)’의 뜻은 분화하였으나 ‘例舉(하다)’와 ‘舉例(하다)’, ‘詩作(하다)’와 ‘作詩(하다)’의 뜻은 분화하지 않았다. 참고로 ‘例’와 ‘詩’가 고유어 문법에서 운용하는 단어이므로 ‘例舉’, ‘舉例’, ‘作詩’, ‘詩作’ 등은 서론에서 본 ‘詩集’과 마찬가지로 3자어류로 분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舉-’, ‘-舉’, ‘作-’, ‘-作’이 3자 서술명사의 1자 어근이나 접사로 쓰이는 다른 예가 없으므로 이들은 ‘詩集’과 달리 3字語類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字 어근으로 쓰인 예는 찾기 어렵다. 한문의 動詞字가 3字語의 1字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化’, ‘-視’와 같은 극소수의 접미사적인 것이 되고, 앞자리에 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被-’, ‘親-’, ‘反-’, ‘抗-’과 같이 관형명사를 만드는 것에 한정된다.

3字語의 1字 요소로 쓰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생산성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의미 부류에 드는 ‘船’과 ‘舟’의 예를 보기로 하자. ‘船’과 ‘舟’는 2字語를 만들 때 앞, 뒤의 두 위치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 준다.

- (10) a. 船首, 船尾, 船長, 船員, 船主, 船泊 …
 b. 艦船, 漁船, 木船, 鐵船, 停船(하다), 造船(하다) …
 (11) a. 舟船, 舟軍, 舟橋, 舟師, 舟人, 舟戰 …
 b. 孤舟, 方舟, 小舟, 魚舟, 片舟, 虛舟 …

그러나 3字語를 만들 때는 字에 따라, 또 같은 字일지라도 위치에 따라 생산성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의미는 2字語에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 (12) 船-: 船+鑑札
 -船: ㄱ. 旅客+船, 輸送+船, 蒸氣+船, 海賊+船, 病院+船, 豪華+船, 油槽+船, 醫務+船 …
 ㄴ. 똑딱+船, 카텔(cartel)+船, 터빈+船, 트롤+船 …
 (13) 舟-: (없음)
 -舟: 獨木+舟, 一葉+舟

3字語의 ‘船’은 앞자리에 쓰일 때는 유일 예만을 가질 만큼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여 주나, 뒷자리에 쓰일 때는 대단히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또, 반드시 한문 문법에 의해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도 운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에 3字語의 ‘舟’는 앞자리에

서는 아예 생산성이 없으며 뒷자리에서는 지극히 낮은 생산성을 보여 준다.

최근에 ‘高等學校’ 또는 ‘高校’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高’의 경우를 보자.

(14) a. 高入, 高卒

b. 中高, 女高, 工高, 農高, 商高 …

(15) a. 高+入試

b. 工業+高, 農業+高, 特殊+高, 科學+高, …

‘高’의 경우에는 ‘高-’와 ‘-高’가 모두 2字語 형성에서나 3字語 형성에 서 동일한 의미, 비슷한 생산성을 보여 준다.

요일명의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16) a. 月火, 月水, 月木, 月金, 月土, 月曜, 日曜 …

b.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16b)의 경우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1字 요소가 아니고 여기 ‘曜日’이다. 이들의 1字 요소들은 위 (16b) 외에 다른 계열을 형성할 것 같지 않다. 즉 이 ‘月-’, ‘火-’ 등의 1字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들은 한결 같이 오직 하나의 3字語 예만을 가진다.

3字語의 1字 요소인 ‘船’, ‘舟’, ‘高’, ‘月’, ‘火’, ‘水’ ‘木’ 등의 의미에서 어떤 접사적 성격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의 의미는 2字語에서 가지는 의미 중의 하나이다. 동일 字가 어기의 앞과 뒤에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생산성은 字와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는 이로써 3字語의 1字 요소가 일률적으로 接辭性, 또는 準接辭性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字語의 특징은 그 1字의 접사성 또는 준접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 문법에 의한 분석에서 그 구성요소가 문법적으로 취급된다는 데 있다. 2字語에서는 同一 字가 여러 가지 품사적 기능으로 쓰이기 때문에 고유어 문법으로는 그 기능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면, 3字語에서는 2字 요소 쪽이 하나의 단어(잠재어 포함)로서 품사와 의미가 확실하게 고정됨에 따라 1자 요소 쪽도 문법적 신분이 어근 또는 접사로 확실하게 고정된다. 따라서 1字 語根의 경우 그것이 2字 要素에 대해 수식어인지 피수식어(核)인지, 지배자(核)인지 피지배자(논항)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12)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를 포함하는 3字語類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자어 접미사의 접미사다운 성격도 3字語에서 비로소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化’는 2字語에서는 비서술명사도 만들고(예: 文化, 王化, 造化), 서술명사도 만들지만(예: 開化, 鈍化, 醇化, 進化), 3字語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성격의 서술명사만을 만든다(예: 民主化, 人間化, 世界化, 都市化).¹⁰⁾ 2장에서 본 한문의 조동사 ‘被-’의 경우도 2字語에서는 ‘被-’의 피동화의 의미가 불투명해진 예가 있었지만 3字語에서는 일정하게 피동적 의미를 유지한다[예: 被支配 (민족), 被壓迫 (계급), 被搾取 (계층), 被保險 (차량), 被推薦 (작품)].

이제 한문의 동사를 포함하는 3字語의 예를 더 보기로 하자.

(17) 訪美/*訪美國, 訪北/*訪北韓, 訪日/*訪日本, 訪中/*訪中國, 訪韓/*訪韓國, 訪加/*訪캐나다 …

(18) 駐美/駐美國, 駐英/駐英國, 駐日/駐日本, 駐中/駐中國, 駐韓/駐韓國, 駐加/駐캐나다 …

‘訪-’은 1字 國名을 취하여 2字語의 서술명사를 만드나, 2字 이상의 국명을 취하여 3字語類를 만들지는 못한다. 반면에 ‘駐-’는 1字와 2字 이

10) ‘X化’의 2자 서술명사도 각각 성격이 다르다. ‘하다’와 결합하였을 때 ‘開化’는 自·他動詞를, ‘鈍化’·‘進化’는 自動詞를, ‘醇化’는 他動詞를 만든다. 그러나 ‘民主化’, ‘人間化’, ‘世界化’, ‘都市化’ 등은 한결같이 ‘정치가 민주화하다 : 정치를 민주화하다’와 같은 관계의 自·他動詞를 만든다.

상의 국명을 다 취하여 2字語와 3字語類를 만든다. 그런데 3字語類를 만들 때 ‘캐나다’와 같은 외래어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어 형성에 고유어 문법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駐-’는 서술명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른바 冠形名詞만을 형성한다.

(19) 訪日/*訪日本을 언제 하는가? 언제 訪日/*訪日本하는가?

(20) a. *駐日/*駐日本을 얼마동안 하는가, *얼마동안 駐日/駐日本하는가?

b. 駐日/駐日本 대사관, 駐日/駐日本 특파원

이 상황은 한문 문법으로는 ‘訪日’과 ‘訪日本’, ‘駐日’과 ‘駐日本’을 다 형성하지만 고유어 문법이 이중 ‘訪日本’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해석된다. 고유어 문법이 ‘訪日本’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4. 어순 갈등과 그 封緘

이 장에서는 3字語類를 만드는 한문 문법의 여러가지 구성법의 생산성을 보기로 한다.

먼저 파생어의 경우를 보자.¹¹⁾

(21) a. 第+一, 第+十¹²⁾ … / 人間+, 都市+化, 學者+然, 當然+視 …

b. 第+몇 / 카리스마+, 해바라기+, 패턴+化, 쓰레기+化 …¹³⁾

11) ‘可能, 可算, 第一 …; 倚子, 街頭, 當然 …’과 같은 2자어를 한문 문법에서는 파생어로 보지만, 고유어 문법에서는 ‘형태소+형태소’로 분석할 뿐이므로 이들이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를 물을 수 없다.

12) 서론에서 본 ‘詩集’과 마찬가지로 ‘第一’, ‘第十’은 고유어 문법에서 2자어로도 3자어류로도 취급될 수 있다.

고유어 문법에서 ‘一’과 ‘十一’은 똑같이 단어 자격을 가지므로 ‘第一’, ‘第十一’ 모두 3자어류가 된다. 접두파생과 접미파생은 고유어 문법에도 있는 구성법이므로 (21b)에서 보듯이 고유어 문법에서도 ‘第-’나 ‘-的’, ‘-化’와 같은 접사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非派生語의 경우는 다음 (2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2)

한문 문법 에서의 구성법	고유어 문법에서의 자격	2字語	3字語
並列 構成	일반명사	天地 父母 意味	•官+民間 •敬嫗+土 (通+不足)
	서술명사	教育 集威 往來	•敬+育威 •敬育+威 (集+大成)
	서술명사(삼재어)	明白 巨大 健康	•巨+多大 •巨大+多
修飾 構成	일반명사	高山 非理 講師	高+地帶 非+公式 料理+師
	서술명사	再審 不參 未納	再+審査 不+贊成 未+分化
	서술명사(삼재어)	過敏 最適 不安	*過+銳敏 最優秀 不+安全
述目 構成	서술명사	自主 愛國 通話	•作+小說 •愛讀+書 (通+姓名)
述補 構成	서술명사	入學 歸家 登山	•入+娼宅 •歸+本家 •登+雪山
	서술명사(삼재어)	有名 無數 廣範	有+意味 無+秩序 廣+範圍
	2자어:서술명사 3자어:관형명사(삼재어)	被檢 被擊 被襲	被+支配 被+征服 被+壓迫
	관형명사	駐韓 親韓 反韓	駐+韓國 親+韓國 反+韓國
前目 構成	부식	於馬 至今 自古	•於+何處 •于+只今 •自+太古
	관형명사	對民 對人 對韓	對+國民 對+人間 對+韓國
主述 構成	서술명사	月夜 日出 氣絶	•露月+出 •月+新出 •氣力+絶
	관형명사	國王 夜深 年數	•國王+立 •夜+深深 •年+數少
	서술명사(삼재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字語는 모든 구성법이 가능한데 3字語는 절반

13) 외래어 및 고유어와 ‘-的’, ‘-化’의 결합에 대해서는 조남호(1988), 노명희(1998:163, 179) 참고.

정도의 구성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구성법의 칸에 음영을 넣어 구별하였다. 일반적으로 2字語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거부되는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고유어 문법이 2字語의 두 1字 간의 문법적 관계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3字語는 단어 차원 이전에 구성법 차원에서 적격과 부적격이 갈린다. 부적격한 구성법에 속하면서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3字語들은 대개 한문의 관용어로 이해되는 것들이다.¹⁴⁾

그러면 이들 구성법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 구성법에 의한 3字語들이 전체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인가? 우선 적절한 3자어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구성에서 각 例語의 1字 요소와 2字語 사이에 어떤 문법적 관계가¹⁵⁾ 강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竝列 構成은 그러한 작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主述 構成은 그 관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그 1字를 軸으로 하여 2字를 붙이는 단어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¹⁶⁾ 2字 병렬 구성법이 특별히 생산적

14)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竝列 構成의 ‘過+不及’, ‘利+不利’, 述補 構成의 ‘進+一步(하다)’, 述補 構成의 ‘出+世間(하다)’ 등은 관용어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集+大成’은 《孟子》에 나오는 음악 관계 표현이 일반어로 쓰이는 것으로 역시 관용어로 볼 수 있다. 述目 構成에 넣은 ‘通+事情’은 ‘事情’이 국어에서 비서술명사로부터 서술명사로 변한 것인데, ‘通’이 부사적으로 쓰인 修飾 構成의 것일 수도 있다. ‘加+一層(*하다)’은 역시 관용어적이다. 이들은 모두 이유있는 예외로 보이므로 본고의 설명법을 무력화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通+姓名(하다)’처럼 예외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은 국어로서의 적격성 판정 대상으로 올려졌을 수많은 경우들을 가상해 볼 때 지극히 적은 수의 예외가 된다. ‘遺+子女(*하다)’, ‘遺+家族(*하다)’과 같은 예는 述目 構成이 아니라 修飾 構成에 들 예이므로 예외가 아니다. ‘條件+附(*하다)’와 ‘心+不全(*하다)’은 修飾 構成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그중 전자는 일본 한자어에서 들어온 것이다.

15) ‘수식—피수식’, ‘논항—동사’와 같은 ‘비핵—핵’의 관계와 또 그 역 방향의 관계를 뜻한다.

16) ‘王立’이나 ‘私設’과 같은 단어는 ‘행위주+행위동사(타동사)’의 구조이다. 이 구조의 2자어는 본질적으로 관형명사이지만, 개별적으로 外心的 구조(exocentric construction)로의 해석을 통해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國立’이 ‘국립 학교’를 뜻하면서 일반 명사가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인 것은 한문 문법의 고유 특성인데, 그것은 2字 구성에 국한된 것이므로 3字語와는 무관하다.

3字語 구성법이 적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語順에서 고유어 문법의 ‘오른쪽 핵’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에서 술목 구성, 술보 구성, 전목 구성은 모두 핵을 왼쪽에 가지고 있어 국어 어순과 같음을 빚고 있다. 이 구성법들 가운데 음영을 넣은 부분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그 3字語들이 어순 같음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동일한 구성인데도 적격 판정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 부분들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들이 모두 관형명사이거나¹⁷⁾ 형용사적 ‘X하다’의 잠재어 ‘X’라는 것이다. 이들은 문법적으로 자신의 관형어를 가지지 못하며,¹⁸⁾ 관형어 외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명사이지만 명사구로 확대될 수 있는 核이 될 수 없다. 형용사적인 ‘X하다’의 경우에는 ‘X’가 본래 명사이든지 부사이든지 혹은 句的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품사적 성격이 비관여적인 위치 즉 줄고(2001)의 어근구(RP)에 놓이므로 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22)의 관형명사 또는 잠재어들은 모두 非核名詞라고 할 수 있다.¹⁹⁾ 그렇다면 비핵명사들은 핵의 위치와 관련된 어순 같음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비핵명사에서는 어순

17) 송기중(1992:72)에서 ‘東’, ‘西’, ‘文教’, ‘自動’, ‘航空’, ‘飛行’ 등이 관형적 기능만을 가지며 단독으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들을 ‘擬似名詞’라고 부른 바 있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는 위에서 ‘文教’, ‘航空’이 관형적 기능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더 들면 ‘駐韓’, ‘私設’, ‘簡易’도 관형 기능만을 가진다. 이들에 대해서는 김영옥(1994), 줄고(1999), 이선웅(2000)에서 관형명사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바 있는데, 그중 이선웅(2000)은 이 관형명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연세한국어사전》은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 이들만을 모아 새로 ‘형성소’라는 준품사적 범주를 인정하였다.

18) 형태론적 차원에서는 관형요소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재어 ‘豪華’는 ‘超-’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鮮明’은 ‘高-’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19) 본고의 관형명사와 잠재명사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홍재성(2000:58)에서는 이들을 ‘어근’이라고 부르고 있다.

갈등이 ‘封藏’된다고 표현하기로 한다.²⁰⁾

이러한 설명은 우선 3字語는 2字語와 달리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도 성분 간의 문법 관계가 분석된다는 앞 장에서의 우리의 주장과 잘 맞는다. 述目 構成이나 述補 構成은 그 구성의 2자어는 용인되고 3자어는 거부된다. 그것은 2자어에 대해서는 고유어 문법의 문법적 분석이 비관여적이고, 3자어에 대해서는 고유어 문법이 관여적이어서 3자어 성분 사이에 핵과 관련된 어순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단 다음 (23)에서 보듯이 오른쪽 핵 원리를 어기는 述目 構成이나 述補 構成의 3자어가 잠재어 또는 관형명사로만 쓰일 때에는(즉 비핵명사로만 쓰일 때에는) 어순 갈등이 봉합되어 국어 단어로 용인된다.²¹⁾

- (23) a. [出+埃及]+記, [向+精神]+性
 b. [先+語末]+語尾
 c. [敵+그리스도]+0

위에서 ‘出+애급’, ‘向+정신’, ‘先+어말’, ‘敵+그리스도’는 모두 어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복합어 속에 봉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述目 構成이나 述補 構成의 동사적 ‘X하다’의 ‘X’와 달리

20) 그러면 동사적인 ‘X하다’에서 오른쪽 핵 원리를 지키지 않는 述目 구성, 述補 구성의 3字語 X는 왜 어순갈등이 봉합되지 않는가? 졸고(2001)에서는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하다’의 ‘설명’은 서술명사이고, ㉡문법을 설명하다’의 ‘설명’은 서술어근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어휘 ‘설명’이 서술명사와 서술어근의 자격을 겸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동사적 ‘X하다’를 만드는 ‘설명’류는 서술어근 외에 서술명사로도 쓰여야 하기 때문에, 즉 핵명사로도 쓰여야 하기 때문에 어순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설명’은 ㉠에 쓰이든지 ㉡에 쓰이든지 언제나 서술명사이고, 이 서술명사가 ㉡의 ‘문법을 설명하다’와 같은 구조에서는 ‘[[설명]N]_{NP}’가 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본고의 논지는 성립한다.

21) 고유어 접두사 ‘민-’도 왼쪽 핵으로 쓰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예: [민+회장]+저고리, [민+꽃]+식물, [민+등뼈]+동물. 이들이 국어 본래적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들의 ‘민+X’도 잠재어로서 非核名詞이다. (‘민+달팽이’류는 오른쪽 핵을 가진 일반명사이다.)

‘*出에급을 하다’, ‘*向정신을 하다’, ‘*先어말을 하다’, ‘*敵그리스도를 하다’와 같은 구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어순 갈등도 불합된 채로 있다. 어순과 관련하여 고유어 문법이 가하는 제약은 불합된 요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3)의 예들이 국어 한자어로 성립한다. ‘적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귀에 들리지 않는 ‘Ø’를 상정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불합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한자어 형성에 고유어 문법이 가하는 제약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유어 문법은 2字語의 각 字를 의미 내용을 가지는 단위, 즉 형태소로 분석할 뿐이다. 고유어 문법은 그 두 형태소 사이의 문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비관여적이다. 따라서 고유어 문법이 2字語에 대해 가하는 문법적 제약은 없다. 그러나 3字語에 대해서는 고유어 문법이 그 구성 요소의 의미는 물론이고 문법적 관계도 분석한다. 따라서 3字語의 구성 요소들의 어순이 국어의 오른쪽 핵 원리와 맞지 않으면 국어의 단어로 용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본고에서 말하는 고유어 문법이 한자어 형성에 가하는 제약이다. 그러나 그 3字語가 非核名詞이면 어순 갈등이 封緘되어 국어의 단어로 용인된다.

본고에서 설정한 非核名詞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동사적 또는 형용사적 구성의 ‘X하다’와, 그 성분 ‘X’의 문법적 성격이 더 고구되어야 할 논제로 남는다. 본고에서 한자 2字 구성을 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으로 본 것도 앞으로 더 면밀히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金圭哲(1980), 漢字語 單語形成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41, 국어연구회.
- 김규철(1997), 漢字語 單語形成에 대하여, 《國語學》 29, 국어학회.
- 김민수 외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영옥(1994), 불완전 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國語學》 24, 국어학회.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_____(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_____(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語學研究》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盧明姬(1990), 漢字語의 語彙形態論의 特性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95, 국어연구회.
-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宋基中(1992), 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秉根 외 편(1993)에 형태론 부분 재수록]
- 심재기(2000), 《國語 語彙論 新講》, 태학사.
- 연세 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 동아.
- 李善雄(2000),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韓國文化》 2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李秉根 외 편(1993), 《형태》, 태학사.
- 李翊燮(1968), 漢字語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 博士 頌壽紀念論叢》, 李崇寧博士頌壽紀念事業委員會.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國語研究》 85, 국어연구회.
- 홍재성(2000),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